제45회

평신도주일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 행 일
2023년 5월 1일

발 행 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9 F. 02)399-4350
kmc.or.kr

발 행 인
이 철

편 집 인
문영배

교정·교열
서은미 김주선

편집·디자인
그리심

비 매 품

I. 평신도주일 인사말 / 이철 감독회장 4

II.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펴내며 / 문영배 총무 6

III. 설교자료 8
1)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 박장규 감독
2) 거룩이 능력이다 / 박웅렬 장로
3)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신영희 장로
4) 양심대로 사십시오 / 류호정 목사

IV. 기도문 : 허태수 목사 30
–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 36
1) 평신도주일 성수방법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VI.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39
– 춘천석사교회의 평신도주일 성수 현장을 가다

VII.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51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VIII. 부록 52
– 평신도 최초의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평신도

이 철 감독회장

해마다 6월 첫째 주를 앞둔 한 주간을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보내고 난 뒤 평신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와의 협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모든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감리교회의 역사는 평신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평신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역할을 부여할 정도로 평신도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으면 초기 감리교회 운동의 발전과 확산은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된 것은 평신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수난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유산을 이어 받아 영적 부흥과 사회적 성화가 잘 조화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큰 역할을 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복음전도자와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감리교회가 영국사회를 개혁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1979년 평신도주일을 제정한 것은 평신도 사역의 전문화와 평신도를 통한 부흥과 사회구원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선교사를 통해 감리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회개와 기도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심령 대 부흥운동, 새벽기도운동, 백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고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영적각성을 주도하며 어려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때에 하나님은 먼저 미국 애즈베리대학교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평신도주일이 기회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 이하에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살아 일어나더니 급기야는 놀라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 강하고 든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번 평신도주일에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평신도주일을 맞기 위해 보내는 기도주간에 강력한 성령임재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120년 전 성령의 역사가 어렵고 불안한 오늘 모두를 새롭게 하는 역사로 다시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점이야 말로 정말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그 역사에 언제나 주인공이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억으로만 기억되고 기념하는 평신도주일이 아니라 부흥, 즉 새롭게 되고 축복이 실재가 되는 평신도주일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펴내며

문영배 장로
사회평신도국 총무

짙은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도 굉장히 먼 곳까지 전달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하여 헤매지 않고 길을 찾고는 합니다. 빛은 그만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위험을 피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가하면, 소금은 어떨까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소금이 있으나 소금의 가장 기본 역할은 짠맛을 내며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제 자리를 잃고 한낱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빛과 소금. 무수히 많이 듣고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빛'과 '소금'.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는 과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짠맛을 잘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시대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그 어려움을 기회로 큰 깨달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작금의 코로나사태로 인해 개인의 삶도 사회 구조도 나라의 근간도 흔들릴 만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딛고 이제는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기 위해 용기 내어 발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골방에서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함께 모여 하는 기도로 바꾸고,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챙기던 시선을 이웃에게로 돌리고, 흩어졌던 봉사의 손길들을 한 데 모아 낮은 곳을 돌아보고 섬기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 정신을 이어받아 '행동하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빛으로 낮은 곳을 비추며 그 곳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평신도주일을 맞이하며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1979년 '평신도주일' 제정을 시작으로 매년 6월 첫째 주일에 평신도의 말씀, 평신도의 전도 사역 등 평신도 훈련의 현장을 지켜봅니다. 각 선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반성을 합니다. 삶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데 늘 현실과 타협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채 겉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척하지 않았는가 하는 통렬한 반성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주일이 거듭 돌아올수록 평신도로서 전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되어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45회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발간하며 평신도의 자부심과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박장규 감독

예레미야 1:4~10

4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더 테레사 수녀를 기억하시나요?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수고한 '빈자의 성녀',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심사기준 3가지를 늘 확인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먹는 사람, 무엇이나 잘 먹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잘 자는 사람,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도 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얼굴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깊이 주름진 얼굴이 그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녀는 자신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녀의 항상 웃는 얼굴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멸망(BC586년) 전후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까지 약 5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늘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기, 멸망의 시기, 포로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1. 하나님이 이미 택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렘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것임을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로 자신을 모태에 짓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간섭하다', '깨닫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냥 단순히 선택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것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모태에 수태되기 전부터라기보다는 아주 영원 전부터 너에 대한 계획과 선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영원 전부터 친밀하게 알아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자체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1)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돗은 솔로몬 때에 자신을 반역하여 아도니야를 추종하였던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추방했던 곳입니다. 학자들은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일 것이라 말합니다. **2) 예레미야 자신이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렘 1:6)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3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부르셨던 예레미야의 나이는 대략 20세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이처럼 젊은 나이이기에 도저히 능력도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렘 1: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렘 1: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조상이 실수하여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패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실수나 성공을 따져서 그의 인생을 계획해놓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미래와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가 우리를 택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모태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 하나님이 이미 성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렘1:5) …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

성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는 믿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감금당하고 매국노라는 오해와 모욕을 견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별해주셨다는 믿음입니다. (렘 1: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주님이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

었다'라고 한 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위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엄청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셔서 이미 거룩히 구별되어 위임식까지 하는 것은 큰 은혜요 감격입니다.

사관학교 생도가 모든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치면 임관식에서 대통령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때 사관생도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고 행합니다. **'성도'는 무슨 뜻은 가졌을까요?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룩한 성별 의식을 가질 때, 비록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련과 유혹,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닥친 다할지라도 거룩히 구별된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

3.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렘 1:5)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가 아닌 '세웠노라'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충성스러운 대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세상

의 어떤 핍박이나 회유, 유혹에 대해서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렘 1: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우상숭배와 타락한 나라에 대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건설하고 심는 회복과 재건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매우 귀한 자리인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그 나라와 많은 열방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도로 택해주셨고 성별하셨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박웅렬 장로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베드로전서 1:14~16

14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인정하신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을 줄만 알았는데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헤롯왕조차도 무리들 때문에 어쩌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마 11:9)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하셨을까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이 되는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도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요한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제사장의 수업을 받게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이 없거나 부족한 광야로 부르셔서 혼자 듣고, 깨우치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거나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사장인 부친의 영역 안에 있으면 아들인 자신에게도 안정된 삶이 이어질 것을 모를 리 없는 세례요한이 제사장이 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세속화된 회당을 벗어나 의식주가 염려되는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무모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짓이라 하며 고생 모르고 귀하게 자라서 그런다고 단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비록 석청과 메뚜기를 먹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욕심내지 않았고, 열악한 광야에서 가르친 제자들을 붙잡지 않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할례가 아니면 이스라엘인이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세례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하였으며, 권세자 헤롯을 향해 아닌 건 아니라 거침없이 선포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나는 죽고 내안에 예수가 사는 의미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눅 7:28)하셨고 헤롯 또한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막 6:20)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고 매진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3:2)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고민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함을 알면서도 끊거나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 어느 곳에 은밀하게 숨겨둔 그것,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버리지는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남겨

두는 그것, 이 정도쯤은 하며 작은 것 하나를 허용했는데 어느새 큰 덩어리가 되어도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그것, 바로 '죄'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한 이유가 죄의 속성은 거룩해야 할 사람을 정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탈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원화된 삶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단 보여지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거기에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에 중독될 여지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막 7:21~22)라고 하셨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기지 못하고 행동에 이른 자들을 사도바울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 4:19)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면 잠시의 쾌락과 유희는 맛볼 수 있겠지만 결과는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손가락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위치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입니다.

그러니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고전 6:9~10)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미혹되어 그들과 동조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벧전 1:17)의 심판을 받게 되나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안에서 씻으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나, 어제

나 오늘이 동일하니 심판의 때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심판의 때를 말하면 재수 없다며 밀쳐 내거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도 거절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 3:8)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올해는 하디선교사의 회개운동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지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룩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고후 6:14)

우리는 얕은 물가의 작은 물결을 보고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요? 아무도 도와 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삼상 2:9) 할렐루야! 지금 거룩함을 장착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싸움에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오롯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또한 악한 자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취하지도 않습니다.

악한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회개하기도 전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14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도록 중보기도는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전 4:5)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 15:13)

거룩함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기도할 때 은혜가 선행되어 내가 내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정결하게 변화된 삶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서 거룩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 4:7) 예언했는데 우리는 풍족한 물질에서 평안하다, 이대로 좋습니다, 하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를 쉬다가 이제 경고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며,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감출 것이 없으니 두렵지도 않고 비난받을 일 하지 않았으니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 앞에 거룩해지며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 148:1~6)

신영희 장로
여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시편 148:1~6

[1]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6]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6월은 나들이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면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만나게도 됩니다. 산, 들, 강, 바다 어디를 가도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귀를 스치고, 얼굴을 매만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높은 하늘은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푸른 풀밭, 나무, 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다양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창조세계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다른 의미의 예배일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출애굽기 3:18)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한복음 4:23).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배, 경배를 곧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줍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 음률에 가사를 넣은 기도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singing이 아니라 praise, worship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8편에 나오는 '찬양하라'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148편은 구절마다 '찬양하라'로 끝을 맺습니다.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 그 위의 하늘로부터 이 땅의 사람들까지 마치 훑어 내려가듯 짚으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4절까지는 '하늘에서, 모든 천사, 모든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물'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을 말합니다.

7절~10절까지는 땅과 바다, 그 안의 생물들, 11절~12절까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찬양해야 한다고,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보다 앞서있습니다. 지음 받은 사람이기에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지음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천적인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태어난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만을 품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불만을 품습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서 더러는 태어난 자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 와서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날에 아들과 딸,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온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그다음 날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합니다. 그날에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고난이 겹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욥에게 옵니다.

욥과 친구들은 이레 동안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욥은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된 뒤에 욥이 처음으로 한 말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욥기 3:1)이었습니다.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고, 태어났다가 바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기도 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유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울어도 고난의 크기가 줄지 않고, 말을 해도 고난의 크기가 줄지 않고, 몸부림쳐도 고난의 크기가 줄지 않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며 저주한 것입니다.

욥의 저주와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 질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분명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 38:2)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은 것의 이유, 어떻게 놓았는지, 하늘의 별은 어떻게 생겼는지, 바다와 육지는 왜 나누어졌는지, 밤과 낮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동물과 식물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달리고, 날고 하는지 등등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아느냐고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욥이 살아가면서 겪거나 누리는 일들, 당하는 고난과 또는 기쁨들 그 이전에 창조되었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일깨워주셨습니다.

태어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설사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 드리는 찬양을 원하십니다.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기준을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행하지 않아도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실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조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찬양하지 못하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창조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인이라기보다는 창조세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양심대로 사십시오

류호정 목사
철원서지방 철원소망교회

다니엘 3:19~28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
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
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
데에 던지라 하니라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
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
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
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
라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
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
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
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
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
데에서 나온지라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
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
었더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
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79년부터 총회 결의에 의해서 평신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희랍어로 '라오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의 두 계급이 존재해 왔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는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도 성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AD 313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면서 교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직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평신도 사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 옥한흠 목사는『평신도를 깨운다』에서 “평신도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가 왜 중요합니까? 평신도는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풍성한 경험은 교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컸습니다만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사도의 지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선출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아직 1%의 교역자와 99%의 평신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평신도는 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신도는 세상을 복음화 하는 주력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는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입니다.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최인규 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인규 권사는 1881년 음력 11월 15일 강원도 삼척군 도하면 송정리에서 부유한 양반이었던 최돈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18세에 1살 위인 홍은선과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아내가 딸을 낳고 집안 눈치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인규 권사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북평 지역에서 망나니로 소문날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회에서 최인규 권사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여 최인규 권사는 성도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화된 최인규 권사는 북평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교회학교장, 속장,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평교회 성도 중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을 중심으로 천곡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최인규 권사가 설교를 담당하며 천곡교회로 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헌신을 하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539평과 밭 1,369평을 천곡교회에 드렸고,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만을 강조했습니다.

그 때, 일제는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국민서사와 창씨개명을 강요하며 조선의 교회와 일반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단들은 일제의 정책에 굴복하고, 기독교 단체들은 해산되거나 폐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예배 시간에서조차 동방요배와 국민서사를 강요하는 일제에 항거하며, 신사참배를 노골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최인규 권사를 불경죄로 체포하여 모진 고문을 하며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일제의 정책에 항거하다가 대전형무소에서 금식 투쟁하던 중 1942년 12월 16일 14시에 순교하셨습니다.

일제는 최인규 권사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똥지게를 짊어지며 거리를 다니게 하는 모욕을 주기도 하였지만, 최인규 권사는 똥지게를 짊어지며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올시다”라고 외치며, 오히려 일본 경찰들을 민망하게 하였습니다. 최인규 권사의 똥지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최인규 권사는 함흥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강릉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진구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진구 목사는 최인규 권사가 쌍스런 욕설과 심한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여 "권사님! 이제는 신사참배를 한다고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최인규 권사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국민서사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여 매를 맞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양심대로 살지 않으십니까? 저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양심대로 목회하십시오." 훗날 이진구 목사는 회고록에서 "나는 최인규 권사의 '양심대로 목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서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앙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인규 권사 역시 일제의 우상정책에 죽음을 불사하며 투쟁하였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다면 자신은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인규 권사의 소원은 자신이 어떤 박해를 받아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뿐이었습니다. 평신도의 역할과 기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평신도 최인규 권사의 굳건한 신앙과 자세가 그립습니다.

차국성 권사는 삼척 경찰서장에게 "최인규 권사는 미쳤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삼척 경찰서장으로부터 "내가 보기엔 최인규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정신병자다"라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께 미친 사람"(행 26:24)이었습니다.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의 어른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최인규 권사와 같은 자랑스런 감리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뒤늦게나마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를 소개하며, 평신도로서 헌신했던 최인규 권사를 통해 평신도 부흥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5.29 (월요일)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마가복음 14: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든 오셔서 열린 가슴을 채워주시고 닫힌 가슴은 열어 주옵소서. 일그러진 모습뿐인 이 세상과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어서 당신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키워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고 해도 "필요 없다" 하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건만 빈손인 줄 모르는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뼘도 안 되는 혀로 나와 타인을 칭칭 동여매는 어리석고도 허튼수작을 밝은 빛으로 녹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깨달음 없이 헛바퀴처럼 맴도는 혼(魂)들을 빛으로 불러내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크고자 하는 자에게 날로 커감을 허락하옵소서. 항아리를 씻듯 자신의 안팎을 닦아내는 자녀들을 이쁘게 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복을 채우사 저들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흙먼지 가득한 하늘 밑에서 맑고 고운 꽃들이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한 시인의 마음을 읽기조차 부끄러운 오늘, 당신의 아들을 본받아 '보니 좋았더라' 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천지를 축축이 적시고 소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비로 쓸면서 찾는 여인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쓰실 때 저희를 동전처럼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변절을 무위로 맞으며 정한 길을 가신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짐짓 덫에 걸리심이 잃은 자들을 찾고자 높이 든 등불인 걸 아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아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0 (화요일)

오신 듯 가시고 가신 듯 오실

사도행전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짙푸르러져 가는 5월의 산과 들판을 봅니다. 모두 초록이고 푸르름이지만 그 어느 것도 같은 초록이 아니고 푸르름이 아닙니다. 밥 먹듯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읽는 굳어진 저희의 눈으로 보아도 당신의 5월은 같은 것 하나 없이 찬란하기만 합니다.
계절의 거울에 비춘 우리의 부끄러운 혼을 감추지 말게 하옵소서. 눈으로 본다지만 편견으로 안구가 두리번거리고, 입으로 말한다지만 연막을 치고, 귀는 늘 열려있는데도 마음은 녹슨 철문 같은 저희의 가슴을 뒤집어 주옵소서.
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겉만 큰 것보다 작고 시시한 사물과 일에 더 정성을 쏟게 하시고, 나와 가깝게 인연 맺은 이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함과 생명의 오묘함을 터득하게 하옵소서. 일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일어남을 알게 하시고, 내 힘과 모든 정성을 우주의 운행 축에 가까이하는 데만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기 전부터, 또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 있으면서 또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 안에 태초에 주신 그 순수한 씨알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덕지덕지 붙은 먼지와 더러움을 떼어내는 주님과의 시간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신 듯 가시고 가신 듯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1 (수요일)

하늘 뜻을 끝까지 따르다 가신

창세기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님, 정신없이 살아온 시간을 아니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영원을 향해 가슴을 더 크게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숨조차 멈추었습니다.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시고 들뜨고 바빴던 마음을 가라앉혀 청결한 믿음을 넣어주옵소서.
죽은 것같이 서 있던 마른 가지에서 숨소리가 들리더니 저마다 가지각색 새싹을 내는 나무들을 봅니다. 무심히 지나치며 밟았던 흙 속에서 작고 앙증맞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천지가 온통 생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렇듯 사방에 진동하는 생명의 소리와 향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부여받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씨앗 하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 안에 감춰진 생명의 씨앗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돈 버는 이야기만 하면 먹구름 끼듯 욕심이 차올랐던 순간순간들이 부끄럽습니다. 누가 잘 되었다 하면 난데없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시기와 부러움이 몰아닥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크고 작음도 더 함도 덜 함도 없이 한 포기 생명의 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빈 마음으로 큰 호흡을 하며 세상의 파도를 넘어갈 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몸 안에 흉한 것들은 다 끓이고 끓여 순한 것은 뜨게 하시고 탁한 것들은 가라앉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당신을 본뜬 모습이 날로 명확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첨하지도 않고 친절하며, 비굴하지 않고 겸허하고, 거만하지 않고 태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늘 뜻을 끝까지 따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 (목요일)

웃음과 기쁨으로 도달하는 인생의 종착역 있음을

디모데후서 4:8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인간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뭘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두운 뭉치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씩은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를 아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 인생을 지으시고, 웃고 웃으며 또한 울고 슬퍼하며 이렇게 배우는 중에 한 줄기 빛을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작은 고기는 쾌히 놓아주고 큰 고기만 망태기에 담는 슬기를 주옵소서.
나 스스로 옳다 하는 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대로 내가 그르다고만 하는 자책에서도 걸어 나와 옳고 그름이 없는 아이들의 명랑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는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봄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봄이 어느 요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나무뿌리와 가지의 오르내리는 기운으로 하여 오듯이, 저희 몸과 마음과 깊은 의식과 명상과 생활 속에서 성령의 기운이 오르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낯선 이의 얼굴 속에서– 농담 속에서– 아이의 웃음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큰 상실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녹여 버리는 거룩한 웃음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못난 사람, 아픈 사람, 고달픈 삶, 안타까운 삶,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웃음과 기쁨으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 (금요일)

교회 그 자체이신 예수

에베소서 1:22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 볕이 흐드러지게 찬란한 날 하천 변 산책로를 묵상하듯 걷다가 몇 군데 세워진 그늘막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들 몇몇이 모여있다가 지나가는 노인들을 붙들어 세웁니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김밥도 있어요." '*천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소리가 귓등 너머로 천둥처럼 들립니다.
전 세계에 퍼져 몇 년 동안 소동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비척거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방향성을 잃고, 교인들은 거룩한 관습에서 벗어난 일시적 해방감에서 머뭇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는 끝났다'라는 말처럼 들려 섬찟합니다.
주님, 교회의 몸이신 당신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는 목회자들에게 헌신할 힘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걸음이 흩어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덮어 씌워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같이, 저희도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거짓 진리로부터 지키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교회를 맞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거룩한 가르침과 실행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강해져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진리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바른 가르침과 모범을 목회자가 삶을 통해 본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은 건강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치열한 삶 속에서 주시는 열매를 선물을 넉넉히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 (토요일)

스펄젼 목사님의 기도처럼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소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여러 활동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활동들이 그에 상응하는 내적 삶으로 지원받게 하소서. 마르다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주님 곁에 앉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확고한 교리를 사랑하도록 회복시키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지도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옛 능력과 그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옵소서. 작은 오순절들이 한데 모인 큰 오순절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해같이 밝게 빛나며 달같이 선명하며 깃발을 든 군대같이 무시무시하게 하소서."

스펄젼 목사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 저희의 기도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복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복 주옵소서. 나태한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환영하여 맞아 가르칠 목자들에게 목숨을 건 십자가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소서. 교회가 하는 활동들이 세상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활동들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합의 때에 엘리야가 바위를 부수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산을 태워버리는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동굴과 같은 심연에 침잠하여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그렇게 주님 곁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확고한 진리의 전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옛 능력보다 더 큰 십자가에 능력을 옷 입혀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큰 불로 번져 나가게 하옵소서.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과 다르게 믿는 무리가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같이 빛나며 달같이 선명한 십자가의 깃발을 든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드님의 덕을 헤아려 이 시대의 교회에게 복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가. 목 적

평신도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실천운동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단체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 평신도주일을 잘 성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가 되도록 한다.

나. 방 법

1) '평신도주일' 광고를 2주 전에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에게 홍보한다.
2)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29 ~ 6.3)은 자료집에 수록한 "기도문"의 '말씀과 기도'를 참고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
3)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평신도상'을 세운다.

다.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려진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① 90%는 지방 평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며,
② 10%는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및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한다.

라.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한다.

| 제출방법 | ① 팩스 : 02-399-4350
② e-mail : sa-pyeong@daum.net
③ 우편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문 의 | ① 전화 : 02-399-4346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간	프로그램	방 법
개체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9(월)~6/3(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하며,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4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 • 불우이웃돕기 물품전달식을 갖는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실천한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전단지 무료배부]
지방	전도 운동	• 지방 내 교회가 합동 노방전도 때 거리청소를 병행한다.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전도상, 효자효부상, 다자녀다복상 등을 선정하여 지방 연합행사시 시상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미자립교회 개보수 재능기부사역을 실시한다.

춘천석사교회의 평신도주일 성수 현장을 가다

(웨슬리안타임즈 황기수 기자, 2022.06.07)

춘천석사교회(동부·춘천남지방 / 손학균 담임목사)

– 김철수 장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선택으로 행복하길"
– 창립 100주년 맞아 지난 4월 장로은퇴찬하예배 겸해 감사예배 드려

감리회는 1979년 총회의 결의로 평신도주일을 지키고 있다. 올해로 44년째 맞이했고 해마다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정하여 예배를 평신도들이 주관하도록 안내한다. 이는 평신도 지도력을 인정하고 사역에 적극 활용했던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평신도들의 신앙과 소명의식을 점검함으로써 감리교인(Methodist)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 웨슬리의 선교와 전도 열정을 이어가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사회평신도국은 평신도주일과 관련한 지침에서 평신도 주간에는 요일별 기도문을 활용하여 묵상하고 주일에는 각 교회별 혹은 지방이나 연회별 연합으로 평신도가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적극 권장한다. 올해 평신도주일의 주제는 지난해와 같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이다. 평신도주간(5.30~6.4) 동안은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정해 매일 기도제목에 따라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주일예배의 순서와 주일성수 방법까지 제공했다. 매일의 주제와 기도제목은 아래와 같다.

이철 감독회장은 서신에서 평신도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민족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평신도들이 감당했던 역할을 설명한 후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서도 실천신앙의 모범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종교에 대해 정의한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다”며 진정한 희망은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희망으로 서야 한다며 “서로에게 희망을 보이는 거울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평신도주일에 함께 간증을 나누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감리교회 평신도가 ‘희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축복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평신도, ‘다양성 속의 일치’를 위한 밀알이 되는 평신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평신도 사역의 전문화와 함께 평신도를 통한 부흥과 사회구원을 향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갈무리했다.

본지에서는 지난 해부터 평신도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사회평신도국의 도움을 받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있는 교회를 찾아 소개하고 있다. 올해는 중부연회 일산서지방회(윤기선 감리사) 연합예배(신도제일교회/취재 김형준 기자)와 더불어 동부연회 춘천남지방회 석사교회(손학균 목사)를 찾아 함께 예배하면서 현장을 취재했다.

▣ 석사교회의 평신도주일 지키기

1922년 창립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춘천석사교회는 지난 4월 10일 창립 100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장로은퇴찬하식과 함께 드린 이날 기념예배에는 코로나19의 여진을 의식해 외부 축하객을 초청하지 않고 교우들만의 잔치로 치렀다. 4대 이상이 교회를 섬기는 가족들을 비롯해 3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교우들에게 기념패 등으로 선물하는 등 나름대로의 의미가 깊었다. 이날 의미를 남긴 교우들은 향후 교회 역사책에 기록될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 사회평신도국에서는 평신도주일을 위한 자료집을 내고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문도 게재했지만 석사교회는 평상시 교회의 주일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선임인 김철수 장로가 자신이 준비한 말씀을 선포했다. 손학균 목사는 평신도주일 성수를 권장하는 본부(사회평신도국)의 의도에 매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올해도 그런 마음에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 평신도주일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5월 30일(월)부터 6월 4일(토)까지 진행한 새벽예배는 매일의 주제에 따라 장로들이 준비한 기도를 했고, 목회자들도 주제에 따른 설교를 했다. 6월 5일 평신도주일 예배에서 손학균 목사

예배에서 설교하는 김철수 장로와 설교에 경청하는 교우들

설교전 평신도주일을 설명하는 손학균 담임목사

는 봉헌기도와 축도만 감당했을 뿐 설교를 비롯한 다른 모든 순서를 평신도들이 맡았다.

석사교회 주일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이며, 주일 저녁예배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주일저녁예배를 복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일예배 출석인원은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주보에 게시된 5월 29일 주일예배 출석인원은 1부 현장 196명(+온라인 172명), 2부 현장 230명(+온라인 150명), 합계 현장 426명(+온라인 322명)으로 현장과 온라인 참석을 합해 748명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850명이었던 점에 비해 약 88% 회복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 – 김항기 장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찬양단의 인도로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 시간이 되자 사회와 설교 등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이 강단에 자리했다. 이어 어느 방송국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착각할 정도의 맑은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교회소식(CSBC 뉴스)을 전달하는 담당자의 목소리였다. 교회소식 알림이 끝나자 회중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사회자 김항기 장로가 등단해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을 하면서 예배로 들어갔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사회자가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로 이어가 '물 흐르듯' 진행됐다. 이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군더더기' 같은 'noisy'를 없애야 한다는 손 목사의 예배학에 기인한 것이다.

기도 – 이세형 장로

조용하면서도 강약을 조절한 총남선교회장 이세형 장로의 기도는 잘 다듬어진 '보석'이 되어 회중들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켜 회중석에서 연신 '아멘'으로 화답했다. 봉헌순서가 되어 강단에 올려진 예물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손 목사의 간절함과 진심이 담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말씀봉독(신 30:19~20)에 이어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찬양은 23명의 단원이 만들어내는 하모니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power)가 실렸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되지 못했던 찬양대의 특별찬양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며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손 목사의 인사가 '그저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찬양에 이어 등단한 김철수 장로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 김철수 장로는 "교회 안에서는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선택은 우리에게 때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한다며 '돌아오는 것'의 의미를 "가던 길을 멈추고 처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다"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물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성인이 되는 것도, 사역자가 되는 길도 아닐 것이라며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근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매순간이 감사하고 귀한 순간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순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영역은 유한하다고 전제하면서 우리 마음의 영역 속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한다면 우리 마음의 폭이 얼마든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으며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의 중심을 상실하고 소란함에 흔들려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될지, 혹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며 의지라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며 그 놀라운 복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지만 익숙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초대 할 수 있는 순간을 잃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한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때 풍성한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다. 끝으로 지치고 곤한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고 초대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설교를 마쳤다.

설교하는 김철수 장로

이날 드려진 헌금은 교회 재정부로 편입되었다가 그대로 평신도 연합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지출해 사용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축복기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한 김 장로와 더불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다시 살아가야 할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했다.

[김철수 장로의 설교문, "선택"(신명기 30장 19~20절)]

할렐루야!

담임목사님께서 강단에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평신도인 장로가 나와 앞에 서니 깜짝 놀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성령강림절이며 평신도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찬양대들이 찬양대의 자리에 서지를 못했는데 오늘 평신도주일을 맞아 처음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고 가슴속에서부터 솟아 오르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979년 3월 감리교회 총회 결의로 6월 첫째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흔네 번째 맞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담당을 평신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을 주제로 한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매일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늘 바라기. 얼싸안기. 자기 항복. 한 사람의 무게'라는 명제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평신도주일을 지정하고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날은 평신도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 교회와 사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교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포기 할 수 없었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들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결국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 안나가는 한국 교회의 성도수가 2백만 명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4~5백만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채 대면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 버리면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님과 평신도들이 협력하고 화합하며 한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일을 맞아 담임목사님께서 이 강단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평신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전체의 내용은 '복 받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누워서 오늘의 할 일을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헌신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처음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세상의 본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지켜내야 할 복 된 삶의 모습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와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데서 멀어지게 되면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

니다. '돌아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처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내다 보면 나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잊고 습관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일과 과제, 그리고 주변의 관계 속에 끌려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내일을 맞는 것이 일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생명이신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성인이 되는 것도, 사역자가 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고 근사하고 감사하고 귀한 순간이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의 순간을 많이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복된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멈추어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확신한다는 것은 불안과 막막함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동안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삶의 영역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영역 속에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한다면 우리 마음의 폭은 얼마든지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상실하고 소란함에 흔들려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될지, 혹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복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지만 익숙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순간

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분주함을 멈추고 고요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풍성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마음의 울림을 만날 때 우리는 약속된 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치고 곤한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우리 춘천석사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 주님 주시는 복된 삶으로 초대받고 초대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창립 100주년을 맞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써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힘들고 할 수 없다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속에서도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었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1만 명 성도가 이 성전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주신 감격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일어 이 성전을 성도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는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평신도 최초의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

1. 최인규 권사는 누구인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 각 교단은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의식으로서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명분으로 신앙 양심을 버리고 심사참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곡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인 최인규 권사는 ① 신사참배 ② 동방요배 ③ 창씨개명 ④ 황국신민서사를 거부하여 투옥되었고, 온갖 고문과 회유를 물리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순교, 순국하신 신앙의 어른이었습니다.

1) 예수님 영접과 신앙생활

최인규 권사는 1881년 11월 15일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에서 최돈일의 차남으로 출생하고 서당에 다니며 한문을 수학하고 성장하여 18세에 홍은선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 7년 만에 딸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인규 권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면서 북평거리를 배회하며 북평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던 최인규 권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북평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북평교회의 따뜻한 전도에 감동되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둘쑥날쑥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1924년 북평 교회에서 김기정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기정 목사는 최인규 권사에게 월간 '가뎡(가정)잡지'를 권했는데, 그 때 최인규 권사는 "술을 좋아하는 여러분은 취중에 정신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라며 시작하는 어느 목사의 글을 마치 자신을 향한 질책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당장 술을 끊고 담뱃대를 꺾었습니다. 변화된 최인규 권사는 1925년에 세례를 받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를 하였으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후, 속장과 주일학교 교사, 유사를 했고 32년에 권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권사는 교회를 맡아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1921년에 최인규 권사가
40세에 처음으로 출석한 북평제일교회

2) 천곡교회 개척과 평신도 사역

최인규 권사는 철저한 신앙생활로 금주와 금연은 물론 대대로 내려오며 섬기던 우상들과 각종 제사 기물을 깨뜨려 불살라 버릴 정도로 신앙이 돈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천곡기도처에 예배당을 짓기를 간구하던 권화선 속장(북평교회, 1932년 임명)을 만나 천곡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바나바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 자신의 밭 1,369평(당시 시가 600원)과 논 539평(당시 시가 450원)을 교회 대지로 헌납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을 위해 낮에는 재목을 운반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며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였고, 1932년 초가 8간의 예배당(북삼면 천곡리 샘실마을)을 세우게 되었으며, 1933년에는 봉헌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담하며 천곡교회로 이명하게 되었고, 그 후로 예배와 결혼 주례 등 신앙생활 전반에 대하여 인도하는 평신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 옥중 항거

최인규 권사는 일제가 1940년 들어서 심하게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1940년 5월에 그를 불경죄로 체포하였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서장은 그에게 똥통을 지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죄인 최인규다'라고 외치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온 동네를 돌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 받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믿고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똥지게를 짊어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최인규올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울진교회의 전도사역자인 신앙의 친구 차국성 권사(삼척교회)는 경찰서장을 찾아가 최인규 권사가 원래 정신병자인데 예수 믿고 조금 나았다가 다시 재발한 것 같으니 석방시켜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서장은 차국성 권사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당신이야말로 정신병자요"라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혹독한 고문을 가해온 서장이었지만 최인규 권사의 신앙에 내심 감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최인규 권사는 함흥재판소에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자 "조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왜 막느냐?"고 항의하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으며 일본 천황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으로 죄인에 불과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일본은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인규 권사는 천황을 모독한 불경죄가 추가되어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제 때 함흥재판소

4) 순교, 순국

최인규 권사는 간수가 매일 아침 동방요배를 강요할 때마다 거부하여 심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는 "나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왔는데,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면서, "나는 재판소에서도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간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동방요배 / 궁성요배

한편 일제는 고문과 협박을 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교회사(敎誨師)들을 선별하여 사상범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사는 최인규 권사에게 "너희 선생인 전도사와 목사들도 신사참배를 하는데 공연히 고집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신사참배를 하면 특별히 가석방시켜 주겠다. 처자들이 보고 싶지 않은가? 그들이 불쌍하지 않은가"라고 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4:10)고 말하면서 신앙적인 지조를 꺾지 않았습니다.

1941년 10월에 최인규 권사(60세 정도)는 신사참배 거부로 잡혀 온 원산지방 고성교회 이진구 목사(40세)와 함께 주로 사상범이 수감되어 있는 대전감옥으로 이감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최인규 권사가 계속되는 고문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을 본 이진구 목사는 최인규 권사가 안쓰러워 "권사님!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내보내줄 것 같으니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가세요."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최인규 권사는 정색을 하며 "목사님! 신앙적인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신앙적인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그래도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아예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진구 목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인규 권사가 어떤 말에도 타협하지 않자 일제는 더욱 가혹하게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문이 계속되자 오히려 금식을 선언하고 일제가 주는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인규 권사는 몸이 쇠약해져 병감으로 이전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골칫덩어리인 최인규 권사에 대해서 형식적인 치료를 하였고, 결국 이감된 지 2일 만인 63세의 일기로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순교, 순국하여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2. 최인규 권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1) 새로운 피조물의 모범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최인규 권사는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던 시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술독에 빠져 북평지역에서 소문난 무뢰배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인규 권사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

하나님은 북평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거의 폐인이 되었던 최인규 권사에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게 하셨는데, 최인규 권사는 교회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최인규 권사가 워낙 엉망진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최인규 권사는 김기정 목사를 만나서 신앙지도를 받으며 급속히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믿어줌으로써 훗날 바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기정 목사가 최인규 권사를 끝까지 믿어줌으로써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최인규 권사는 집안에서 행했던 각종 제사에 대해서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노골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최인규 권사는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그 결과 북평교회에서 속장과 교회학교장, 권사의 직분을 받아 충성스런 일꾼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인규 권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 4:32).

최인규 권사는 자신도 초대 교회의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재산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인규 권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539평과 밭 1,369평을 천곡교회에 드렸습니다.

한편 1937년 1월 21일 총리원 이사회에서는 교회에 금품이나 토지를 기증한 성도들에게 포상하자는 의견이 결의되어 1938년 10월 총회에서 토지를 기증한 최인규 권사가 표창장과 은제 상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제 신사참배를 결의한 곳에서 상을 받고 싶지 않아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면류관보다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하였습니다.(딤후 4:7~8)

천곡교회로 이명해 온 최인규 권사는 불신자 시절, 북평 장터에서 알고 지냈던 불량배들과 떠돌이들을 전도하여 천곡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마 12:50)

2) 똥지게는 십자가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신사사원규칙'을 공표하여 신사의 정비와 중대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1925년 조선신사가 남산 지역 20만 평 규모로 확대되며 조선신궁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일제는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일본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을 하면서 내선일체와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강제 신사참배는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이 되었습니다. 1935년 국민 사상통제를 시작으로 신사중심의 애국반이 편성되었고, 신사참배와 궁성요배, 국기게양과 황국신민서사 제창, 근로봉사 등 월례행사를 강요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가정에 '신붕'(神棚)을 설치하고, 신궁의 부적을 강제로 배포하였습니다. 경찰 내부에 감시대를 조직하고, 애국반에 밀정조직을 설치하여 신사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였습니다. 1936년 8월, 신사제도 개정에 대한 칙령이 발표되어 신사제도가 행정구역단위로 524개가 신설 정비되었으며, 1945년에는 1,062개로 세포조직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1936년 8월, 우가키 총독의 후임으로 육군대장 미나미가 조선총독부 총독으로 취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사참배 간섭과 협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1938년에 기독교의 각 교단들이 강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고,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들은 해산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조선감리회연맹에서 연맹 규약과 지방 규약, 그리고 교회 애국반 규약을 발표하자 각 교회에서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여 친일단체 조직에 참여하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회가 신앙의 양심을 꺾고 우상 앞에서 절할 때, 변방에 있었던 최인규 권사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창씨개명을 반대하며 오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갔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북삼면의 반장과 서기가 일본에 세금납부와 부역할 것을 강요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겠지만 일제에 세금과 부역은 협조할 수 없소"라고 반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천곡리 냉천 동산의 서낭당에 신사를 세우려는 일제의 음모에 항거하여 쫓아내고, 교인들과 지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1940년 5월, 일제의 앞잡이인 장윤두 고등계 형사를 보내어 최인규 권사를 영장도 없이 체포하였고, 가혹한 고문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는 "신사는 일본의 종교가 아니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게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므로,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소"라고 가열차게 투쟁하였습니다.

취조하는 친일 형사들은 고집불통의 최인규 권사가 숱한 매질과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자 난감했습니다. 그 때, 누군가 "똥통을 짊어지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요'라고 외치게 해 망신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인규 권사는 똥통을 짊어지며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쳐다보지는 못하고 고개 숙여 수군거렸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저런 짓으로 창피를 주다니 천벌을 받을 놈들!" "일본은 언제 망하는 게야?"

그런데 똥통을 짊어지고 가는 최인규 권사는 골고다 십자가를 연상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강제 신사참배를 거역한 최인규올시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 권사요."

최인규 권사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기는커녕 신앙의 절개와 애국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최인규 권사를 망신주려고 했던 친일 형사들은 오히려 얼굴이 시뻘게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최인규 권사의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십자가가 보여요. 최인규 권사가 짊어지고 가는 똥지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 나도 보여. 최인규 권사의 똥지게는 십자가였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3) 순교에서 순국으로!

한국교회 순교자기념사업회는 2005년 12월 1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에서 2005년 제2차 한국교회 순교자 추모예배를 드리면서 감리교회의 서기훈 목사(장흥 교회)와 최인규 권사(천곡교회)

의 존영과 순교비를 제막했습니다. 순교자기념사업회는 서기훈 목사와 최인규 권사의 순교 사실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확인을 거쳐 한국교회 순교자로 추서했다고 밝혔는데,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2013년 4월 4일~5일 은평교회에서 제33회 서울연회를 열고 '신사참배 회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회개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1936년 양주삼 총리사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며 국내 개신교 교단 중 가장 먼저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라도 일부이지만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회개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순교한 목회자는 감리교회의 강종근 목사(철원제일교회, 1942년 6월 3일), 성결교회의 박봉진 목사(철원교회, 1943년 8월 15일), 장로교회의 주기철 목사(산정현교회, 1944년 4월 21일)입니다.

대전형무소

그런데 최인규 권사는 평신도로서 1942년 12월 16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창씨개명을 반대하다가 대전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교가 아니라 순국입니다. 왜냐하면 최인규 권사는 일제의 어떤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투사였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는 1940년 아라카와로 창씨개명을 하였으니 순교자는 맞지만 순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는 "천황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일제에 투쟁했던 민족주의자이며, 반일투사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금식하다가 순교한 순국자입니다. 따라서 평신도 최초의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하신 최인규 권사는 순교자, 순국자입니다.

3. 최인규 권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최인규 권사의 흔적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최인규 권사를 감리교회가 잊었고, 국가가 버렸습니다. 최인규 권사와 교제했던 이수정 지사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지사의 부인인 이부전 장로의 증언이 있어도 최인규 권사는 애국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덕상의 『상해임시정부와 여운형』에 보면, 소화12년(1937년) 말경에 기독교 교역자 20여 명이 동방요배와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받은 자의 숫자와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인규는 불경죄로 2년 형을 받고 순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애국자로 훈장 추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교기념비 제막예배(1982. 8. 15)

양양의 3 · 1운동 애국지사인 조화벽은 1982년 대통령 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양양읍 남문리에 '조화벽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인규 권사는 '최인규 거리'는커녕 순교, 순국 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고, 애국자 묘역에도 안장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인규 권사를 순국자로 인정하지 않고 훈장이 추서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인규 권사를 세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순교자 최인규 권사, 순국자 최인규 권사, 평신도 최초의 신사참배 반대자 최인규 권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최인규 권사의 숭고한 신앙과 애국심을 계승하여 '양심대로 살라'는 준엄한 목소리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순국순교자 최인규 권사 기념비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